

전국 반나절 『철의 실크로드』 충청권이 앞장선다

— 철도건설사업 집중투자로 지역경제, 문화, 고용증진에 기여 —

충청본부(본부장 이상성)는 2012년 충청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철도건설사업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 의지를 밝혔다.

2012년 충청권 철도건설사업은 호남고속철도,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 서해선 복선전철사업 등이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문화, 고용의 활성화는 물론 전노선 개통시 대전은 새로운 서해안시대 도래 및 전국을 반나절(90분)에 이동할 수 있는 중심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사업은 2018년까지 총사업비 3조 9,284 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홍성(충남)~화성(경기도)간 서해선 철도연결을 통해 수송시간단축 및 지역개발 촉진, 관광산업 증진 등 새로운 서해안시대를 열어 가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역은 지역의 관문으로 고속철도 2단계 사업비중 1,0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9년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 계획에 맞춰 증축 예정으로, 금년도 12월 발주하여 201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며 지상 4층 규모로 대중교통 환승장과 경부 선로 위 주차장 조성 등 새롭게 단장,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내년 철도건설 투자예산 중 충청권 철도건설 사업비는 총 8,018억원으로 금년 7,424억원 보다 8% 증액 예정이며, 철도건설 사업비 투입으로 약 14,632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충청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권 철도건설 사업현황〉

(단위 : 억원)

구분	해당사업	사업기간	연장	총사업비	'11년 예산	'12년 예산(안)	증감
충청권	경부2단계	'02~'14	18km	11,247	1,601	1,349	252
	호남고속	'06~'17	230km	104,901	5,823	6,658	835
	서해선	'09~'18	89km	39,284	-	11	11
소계			337km	155,432	7,424	8,018	594

신안산선, 서해선 송산차량기지 기술도사용역 협의회 개최



건설본부(본부장 김병호)는 지난 8일 6층 회의실에서 철도공사 및 공단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산선, 서해선, 원시~소사~대곡 노선에 운행될 차량의 유지 및 검수 시설인 송산차량기지 사업을 위한 기술조사 용역('11.6.15~'11.11) 최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차량기지건설 사업은 토목, 궤도, 건축, 검수, 시스템 등 11개 분야 복합공종의 플랜트 공사로서 그동안 건설완료 후 운영자인 철도공사와 인수인계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건축/설비처에서는 철도공사 및 공단 분야별 부장급으

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계획단계부터 시공 후 인수인계까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용역 최종보고회에는 분야별 협의체 위원 및 용역사가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추진결과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였다.

조순형 건축/설비처장은 이 자리에서 철도차량 점검·정비 시설인 차량기지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복합공종의 사업으로 노반, 궤도, 건축, 시스템 등 그 어느 사업보다 계획단계부터 철도공사와 공단의 긴밀한 협조 및 각 분야별 상호 인터페이스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과잉설비를 지양하고 시설규모 최적화를 통한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제적인 차량기지 건설을 위하여 철도공사 및 공단 관련부서, 협력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건축/설비처는 보고회에서 제시된 분야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철도공사 및 공단 분야별 관련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새롭게 건설되는 철도노선의 차량기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철도의 이미지와 에너지 효율화 정책 등에 부합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제적인 선진화된 차량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며, 입찰안내서 기술심의 및 시행방침을 수립 후 내년 상반기에 일괄입찰(T/K) 입찰공고 할 예정이다.

〈건설본부 강대열 기자〉

저가 낙찰업체, 총사업비 변경 3.6배 높아

— 제도개혁 추진으로 안전 및 시공관리 강화 —

공단은 예산낭비와 건설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자체조사를 해본 결과 예정가의 70% 미만으로 저가 낙찰업체의 경우, 낙찰률 70% 이상의 경우보다 설계변경금액이 평균 3.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공단은 일단 낙찰 받고 보자는 식의 저가투찰 등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여 철도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04년 이후 100억원 이상의 설계변경 현황

구분	70%미만 낙찰업체	70%이상 낙찰업체	대비
건수	27	123	
설계변경금액(백만원)	21,284	5,981	3.6배

공단은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중인 9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29개 현장과 낙찰률 70%미만 27개 저가현장에 대해 감리강화 및 특별점검관리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속철도 공사현장에서 터널붕락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안전 및 시공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철도건설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잉 설계나 시공·감리 잘못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시 감점을 확대하는 한편, 보증료산정 시 입찰참가제한, 부실발점, 품질안전사고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단은 불공정 하도급관행도 개선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생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무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시험선 구간 확정

— 대불선 일로~대불간 10.4km —



녹색철도연구원(원장 서성호) 기술연구소는 지난 11일 6층 회의실에서 국기R&D과제 개발 중인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Korea Radio Train Control System)'의 성능평가·검증을 위한 시험선 구축 방안에 대한 확정 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는 그 동안 기술연구소 전기연구부(부장 정상국)의 연구진과 설계사 그리고 철도공사 각 현업 부서와의 실무 협의의 결과로 도출된 3가지의 시험선 구축 방안에 대하여 연구기관인 철도기술연구원, 운영기관인 철도공사 본사 각 관련 부서 및 시험선 구축 총괄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기술연구소 전기연구부, 공단 시설계획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구축안 별로 깊이 있는 검토와 토의를 가졌다.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 - 수의계약 절차 개선

— 공개견적 및 사전규격 공개 시행 —

경영지원안전실 계약처는 지난 2일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해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업무절차에 따라 앞으로는 소액수의 계약 시 소수의 특정업체로부터 받아오던 견적서를 KR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다수의 업체로부터 공개적으로 받아야 하며, 특정한 기술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에는 사전에 해당 규격을 KR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발주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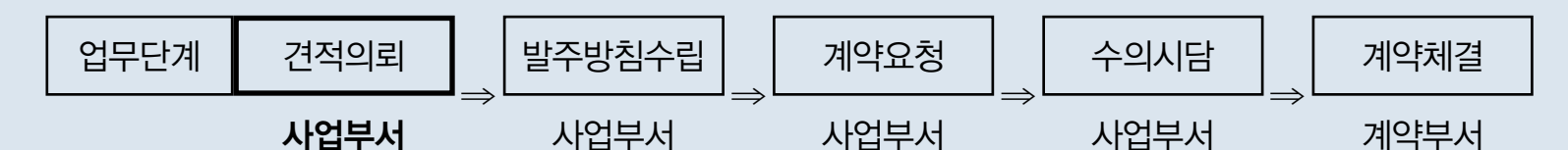
또한, 생산자 1인, 문화재 지표 및 시발굴 조사, 유지보수용역 등의 수의계약도 일반경쟁방식으로 추진한다.

계약처는 이번 수의계약 집행기준 개정으로 업체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이 향상되어 그간 일부에서 제기 되어 왔던 특혜시비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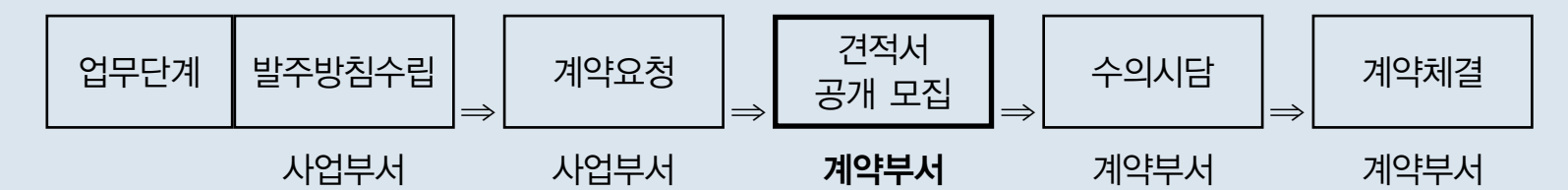
〈경영지원안전실 김억수 기자〉

● 소액수의계약

• 종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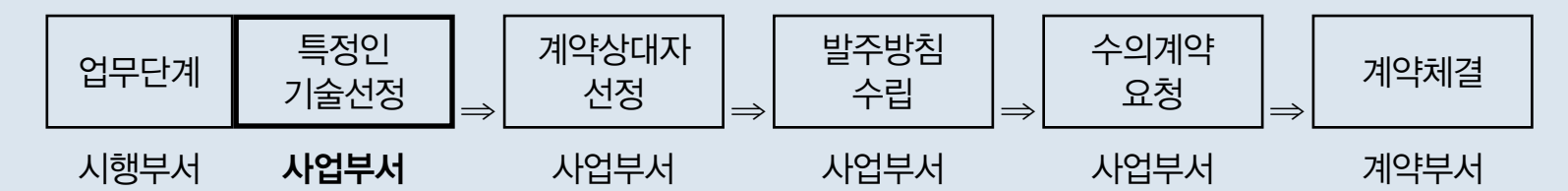


•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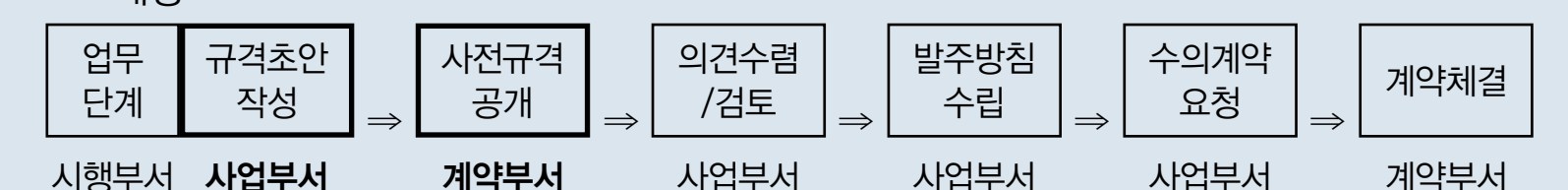


● 특정한 기술, 신기술인증 등

• 종전



• 개정



시험선으로 검토된 대불선 일로~대불역간은 현재 철도공사에서 화물열차 영업선으로 운영 중인 선로로 시험설비 구축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 뿐만 아니라 안전 측면에서도 열차계획, 역 운영, 선로 계획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장기간에 걸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연구원이 당초 제시한 안대로 확정되었으며,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시험선 구축 방안을 선정 되었다. 당초, 열차 운행 횟수가 적은 단선 선로로 임시분기기 설치, 전차선 추가 가선 등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제약 조건이 있어, 협의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정상국 전기연구부장이하 실무 연구진들의 충분한 자료 제공과 사전 설명 등으로 계획대로 무난하게 결론을 확정되었다.

녹색철도연구원은 본 R&D과제에서 시험선 구축 및 성능평가를 주관하며 총 118억원의 연구비를 집행하고 있다. 특히, 시험선 인프라 구축은 녹색철도연구원이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철도기술연구원과 철도공사를 하부 공동기관으로 이끌고 있다.

공번 회의로 시험선 구간이 확정됨에 따라 전남 무안군 대불선 일로~대불역간 약 10.4km에 건설될 시험선 건설에 대한 추진에 속도가 붙어 당초 계획된 '2012년 9월 시험에 착수하겠다는 목표달성은 물론, 시험의 조기 착수도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다.

무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개발 사업은 '2013년 12월 완료'를 목표로하여 현재 2차년도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녹색철도연구원 윤학선 기자〉

